

교 회 목 표

신령한 예배
진국임권 양성
만족 복음화
세계 진로
아름다운 삶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행 20:9)

대한예수교 총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자 · 날 · 수 · 요 · 목 · 금 · 토 · 일 · 주 · 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삼상 13:13~14)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아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분이 되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주종관계를 왜곡시키는 일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종교성에서 기인된 생각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자가 되는 일이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연합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가장 분명한 분이 되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 3:17). 진실로 그리스도의 지상생활의 생애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었고, 다했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가(행 13:22).

다윗은 하나님의 채찍 앞에 회개하는 자였다

자기 백성을 계속하여 성공을 만끽하던 다윗의 교만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타락의 냄새였다(대상 21:1). '가뭇 유다'가 당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다윗은 이미 사단의 목표물이 된 것이다. 결국 그의 교만은 그가 다스리는 나라 전체를 재앙으로 몰고 갔다(삼상 24:10,15). 그러나 그는 '사울 왕

이나 가뭇 유다'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 그는 회개하였으며, 결코 작악으로부터 숨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악행을 고백하며 그 죄를 자신에게 돌렸고(삼상 24:17),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삼상 12:13,16).

죄에 대한 각성, 돌이키고 그리고 가슴을 찢는 진정한 회개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길어내는 놀라운 무기이다. 모두가 죄악에 젖어 있기에, 모두가 죄악에 대한 용서와 죄 씻음이 필요하기에, 회개는 무기력한 인간을 두렵고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수치와 더러움을 태우는 불구덩이로부터 대속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귀환(歸還)의 요로(要路)이다. 이 십자가의 구원에 동참하는 일이다(요일 1:8~9). 진실로 회개는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믿음으로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신 천부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가는 일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스리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미아(렘 31:34b).

다윗은 예배드리는 자였다

다윗은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聖殿)을 짓고 싶어했다(대상 17:1). 하나님의 거룩한 전역(殿域)에 대한 열망, 그 열망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해서도 드러났다(요 2:17).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면, 그러한 열망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한 의지와 소망을 거절하셨다(대상 17:4). 그리고 그 대신에 다윗의 위를 견고케 하는 축복을 내리셨다. 비록 다윗의 비람과는 다른 응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셨고 응답하셨다.

다윗은 봉사하는 자였다

비록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그는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 두었다(대상 28:2).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봉사한다는 것은 결코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군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오직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며(마 6:3), 오직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기쁨과 울레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창 22:3).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야(대행 13:36). 그들은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둥에 그 이름을 새기는 자들이(대행 8:4).

읽고 오묘한 그 말씀 / 1월 10일 금요일

V.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의 선교의 정당성

2. 땅 끝까지

베드로는 아시아 49장 6절을, 야고보는 아모스 9장 11절~12절을, 사도 바울은 아시아 69절~10절을 인용하여 이방선교에 대하여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아시아 61장 1절~2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셨다. 그 뿐만이 아니라, 사뮈엘 과부와 나야만 장군, 그리고 나스렛의 회개와 사바 여왕의 예도 들어주셨다. 그러므로 동방박사의 방문이나, 바울의 선교 사역은 모두가 구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구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담을 발견하게 된다(고후 1:20).

사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으며(골 10:4), 바울이 전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의해 예언된 것이었다(골 1:1~2). 그는 이방인을 위한 직분에 순종하였는데(골 1:5~6), 이방인의 출판한 수를 들어온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골 1:25~26).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방으로 옮겨졌다가 다시금 이스라엘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골 1:28,29,33).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골 1:16,18). 이 사명을 위하여 땅 끝까지 가고자 했다(골 1:23,26~28). 또한 그는 선교 중에 얻었던 이방인들을 열매로 간주하였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골 1:30~31). 진실로 아시아의 예언처럼 이방인들이 주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사 66:20~21).

한편 바울이 땅 끝이라고 여겼던 사바나(스페인) 그 땅은 요나가 선교하기를 거절했던 땅, 나시스 었다는 사실은 커다란 흥미를 더해준다(대행 1:30) 또한 시편 72편 8절~11절에 기록된 솔로몬의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기도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자라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활을 것이라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사바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니 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리고 지금의 '스페인'으로 알려진 이 나시스는 아시아 66장 19절과 열왕기상 10장 22절 그리고 아시아 60장 9절에도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마지막 날에 그곳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열국의 이방인들을 데리고 은금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사 60:3,4,9).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이것은 종말 때에 나타나게 될 마지막 일에 대한 예고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 때에 내가 보고 회색을 발하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회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파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유입하리라 하라니 야대, 미디안과 아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사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와 찬송을 전할까 함이며 거대한 땅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이리니 그 나뭇의 수컷은 네게 공급되고 네 단에 올라 기거하며 밭이 되리라 내가 열방의 짐을 열방에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바돌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사 60:5~8). 그러므로 이방선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장 직접한 방대한 산 재물을 준비하는 가장 직접적인 노력인 것이다. 구원을 땅 끝까지 베푸시며, 그 땅 끝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은 진실로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시 72:18~19).

GOD'S GREAT PLAN

(Psalm 67:1-3)

"God be gracious to us and bless us, And cause His face to shine upon us--Selah. That Your way may be known on the earth, Your salvation among all nations. Let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Let all the peoples praise You"

When you carefully look at these Old Testament Psalm verses, you can see the main concern of missions. "God be gracious to us and bless us" refers to the Israelites, God's chosen people, "And cause His face to shine upon us" talks about the light that always advances. This light shines upon their faith, so that their faith can shine upon others and God and His salvation can be made known to the entire world. The heart of the song calls for God's people to praise Him, "Let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and for "all the peoples" of this earth to praise Him. Jesus' great commission to us says,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Mt. 28:19-20). In essence, Jesus' instructions for us are to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Mk. 16:15). God's people receive His light so that it can shine to the ends of the earth. Jesus is the light. He came to this earth to do God's will, "For I have come down from heaven, not to do My own will, but the will of Him who sent Me"(Jn. 6:38). His will is for Christians to follow Him in God's will. This is the nature of God's great plan of salvation.

The great commandment of Jesus to Christians involves missions. This means that the main concern of the Church is missions. Sadly, most of the larger churches in our world consider other things more important. They give more attention to running the church as a corporation, raising money, administrative tasks, and building concerns. Look at the inside matters of Choong Hyun. We have more than 60 assistant pastors whose job

is to cover 20 different districts. We have 70 elders. We have 24 different Sunday school programs, 1600 Sunday school teachers, and 1300 choir members. Our restaurant takes care of 14,000 people. We have fundraisers and welfare work. We have people to run our prayer house, cemetery, and building maintenance programs. We hav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people. In addition, we have thousands and thousands of congregation members who need care. Not only that, but we have wedding, funeral, and baptismal duties. Where is God's plan? Where is Jesus' great commission? Only a few people go out from among us. Only a few people care about God's heart. So many churches today only care about their own discipleship. They only care about increasing their church members. Let's honestly and humbly come back to God's great plan.

The first thing we need to do is go. The first part of God's plan involves going! When God's face shines upon us we can't go back, we have to go forward. It's easier to do almost anything else in the church. It's easier to serve on a board. It's easier to give money to send others. It's easier to nitpick and grumble. Indeed, it's easier to be part of a faction rather than to go into action. When the church begins to go. I sincerely believe that it will begin to grow. Let's remember Romans 10:15, "How will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Jus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of good things!'"

The second thing we need to do is weep. The second part of God's plan includes weeping. Our hearts must be right. If people go out without love or conviction, if they truly aren't concerned

about lost souls then they shouldn't go. We must not send out people because of tradition, custom, or obligation. Our hearts have to take the cross. Jesus took the cross, and before He did, He prayed and cried. That's God's way! He wants us to go crying because this kind of crying heart always finds lost people.

The third thing we need to do is sow. The third part of God's plan involves sowing. The Bible teaches us that the Word of God is like a precious seed that bears four reactions: no response, emotional response, worldly response, and fruitful response (see Lk. 8:11-15; Mt. 13:18-23). Many churches go, but instead of planting the Word of God they do lots of other things. They give gifts, build houses and hospitals, and teach secular education. They don't teach Jesus Christ. Where is God's light? What is the lost soul supposed to do without the light? Lost souls need the Word of God. We can't ignore the lost soul. Our job is to win souls! We have to teach the lost about Jesus Christ. Those who aren't concerned about Jesus Christ have no light to shine. When the Word of God is sown in a good soil, then the soul can hear, understand, and bear fruit.

The final thing we need to do is reap. The last part of God's plan involves reaping. We must make every effort to win people to Christ. We can't leave soul winning to others. Luke 15:10 says, "In the same way, I tell you, there is joy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s." Amen. Winning souls brings present rejoicing and future joy. When God's Word is planted in good soil, it needs to be watered to grow roots. We must water the seeds of God that have been planted.

Where is your heart concerning God's great plan? Are you concerned only with Choong Hyun? Are you just centered on your own business and family affairs? Are you really listening to God's plan? God saved you, His Son died for you, and He asks you to follow His plan. Are you going to join? Today's Bible verses sing the words, "Let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Let all the peoples praise You." How can all the peoples praise Him without hearing the gospel? Is your heart ready and willing to go and spread the gospel?

위대한 계획

여러분들은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날의 시편 본문에서 선교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취사”라면서 항상 진취적으로 비추는 빛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빛은 그들의 믿음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비추므로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백성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예수께서도 우리를 향해 이 위대한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본질적으로, 예수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 16:13)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이 세상 끝까지 비출 수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께서는 빛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 6:38~39a). 그의 뜻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본질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주된 계획

그리스도인을 향한 예수의 위대한 지상명령은 선교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주된 관심이 선교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사들처럼, 돈을 모으는 것과 행정적인 업무, 건물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현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20개의 교구를 감당하기 위해서 60여 명의 부교역자들과 70여 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24개의 주일학교에 1,600명 이상의 주일학교 교사를, 그리고 8개의 찬양대에 1,300명 이상의 찬양대원들이 있으며, 기도원과 모지와 건물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행정과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수 천명의 교인들도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매 주 14,000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합니다. 또한 복지사역을 하고 있으며, 결혼과 장례,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위대한 지상명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몇몇의 사람들과만 어울려서 가운뎃에서 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나갑니다. 단지 몇몇의 사람들과만 어울려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하여 신경을 씁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단지 자기 교회의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의 신자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시 67:1~3)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취사(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김성관 목사

에만 온통 정신을 집중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되돌아보십시오.

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일은 ‘가서’입니다. ‘가서’는 하나님의 계획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뒤돌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서’가 아닌 다른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한 위원회를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그것들은 쉽습니다. 더 나아가 자질한 일에 간섭하고 불평하는 것도 쉬운 일이며, 참으로 ‘가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안에서 파벌을 짓는 것은 더욱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밖을 향해서 나아가 때, 분명히 교회는 자라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0:15를 기억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위한 눈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요건은 눈물을 흘리는 일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중에서 두 번째 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게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일 어떤 이가 사랑이 없거나, 회심하지 않았거나, 또는 진실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이들은 선교하러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력이나 관습 또는 의무감 때문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가는 이들의 마음은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는 기도하셨고 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처럼 슬픈 마음을 가진 이들이 언제나 잃어버린 자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요건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응하지 않거나, 감성적으로 반응하거나, 세상적으로 반응하거나, 혹은 열매를 맺는, 이 네 가지 반응(눅 8:11~15, 마 13:18~23 참고)을 낳는 귀중한 씨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가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심는 대신 다른 많은 것을 행합니다. 선물을 준다가, 주택과 병원을 지어주며, 세상의 교육을 가르치는 등의 일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빛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소환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영혼들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야만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심기어질 때, 영혼은 듣고 이해하게 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혼을 추수함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요건은 추수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의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려갈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에겐 영혼을 빼앗기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10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영혼을 얻는 일은 현재와 미래에 즐거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심겨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뿌리가 자라도록 물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자라나도록 물을 주어야 합니다.

너도 가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단지 충현교회에서만 하나님의 계획에 관계하고 있습니까? 단지, 여러분의 사명과 가장 밀접한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드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그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죽게 하였고, 자신의 계획에 동참하여 따라오도록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셨습니까? 오늘날의 성경본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어떻게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고자 하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임 동 개 (기사, 1교구)



방글라데시 공항에서 보그라로 가는 길은 1m앞도 예측 할 수 없는 절고 자옥한 안개에 싸여 있었다. 우리는 영화같이 불안한 분위기에 놀려 5시간 동안 숨을 죽이고 갈 수밖에 없었다. 이틀난부터 축로전도, 노방전도를 시작하자,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복음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버스 기사도 차에서 내려 손님들과 말씀을 들었다. 마을의 여인들과 어린이들은 찬양과 율동에 같이 참여하였다. 운전 기사 "앗"은 어느새 방글라데시로 410장 찬송을 익혀 붙었다. 무슬림인 그에게 성경에서 역사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통역 없이 단원들이 직접 방글라이어로 전하자, "앗자"(종이요/그래요라고 말하는 그들을 대하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 중엔 "나"(아니요)라고 말하는 강력한 무슬림들도 있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담대히 전했다. 돈을 원하는 무슬림에게 돈은 없지만 성경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줄 수 있다고 말했고, 성경을 돌려주는 이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다시 권하였다.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을 수 있으리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시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한다. 세계 2위의 이슬람 국가이지만 그들 중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신인하는 이가 우리. 우리는 아담디기, 난디그람, 들한치아, 카하루의 여러 마을에서도, 이슬람 사원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아무도 우리를 제재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를 위한, 충헌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었으리라.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①

올해부터 각 교구 지역장을 중심으로 하여 단기 선교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간충헌은 단기 선교팀을 이끌 각 교구 지역장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지역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5월에서 6월 정도에 4교구 4지역 식구들과 함께 불가리아로 갈 예정입니다. 현재 팀원 구성 중에 있으며, 12명 정도를 구성하여 노방전도, 축호전도,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2. 지역장 중심의 단기 선교팀 구성이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교지에서 아침과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하는 영적 인도자로서 서야 하는 부분이 많이 부담 됩니다. 또한 현지에서 집회 시 선교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 또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3.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제목들 적어 주세요.

모든 팀원들이 성령으로 완전 무장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으로만 무장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4. 단기 선교를 위해서 주제로 삼고 싶은 성경구절과 그 이유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사 6:8). "은 천하에 다니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이 말씀처럼 나를 보내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 단기 선교에 임하는 본인의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복음만을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갈 예정입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와 보니, 단기 선교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 단원의 믿음 또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 식구들과 젊은 이들에게 더욱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름: 박필재
교구: 4교구
지역: 4지역
현재 봉사부서:
청년2부 부장

(영접성 기자)

선교 지망자의 소명의식과 자질

선교를 갔다 온 많은 충헌의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다. 가기 전에는 특별한 사람만이 선교를 가는 것이며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누가 선교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자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당신이 있어 멸망으로 떨어질 인류를,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3).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기 가장 좋은 땅으로 떠난다. 그는 첫 번째 선교사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선교사가 되기를 명령하셨다(창 19:4-6).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을 형성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방민에게 복음을 전하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고 이스라엘을 형성한 것임을 말해준다(사 49:6).

믿음을 가진 자는 어느 족속이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므로(롬 4:13,16),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선교사들이다. 이것은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다(마 28:1, 행 1:8). 이미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의 사명이 주어진 바, 선교사는 환상이나 꿈, 특별한 사건을 통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교를 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

선교사가 하는 일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오직 그만이 구원임을 믿는 것이 첫 번째 자질이다. 초대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뽑을 때,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성령 충만함(행 13:9)과 성경을 바로 알고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자질이다. 성경과 동행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지적으로만 복음을 알고 있는 자이다. 지식은 지식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 오직 성령만이 복음을 완전히 믿고 행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복음의 지식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역시 선교사가 될 수 없다. 선교사는 영의 지식을 전달하는 자로, 자신이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을 전할 수 없다.

충헌의 성도들 모두에게 선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는 것이다. 지금, 결단해야 한다. 그리고 선교사의 자질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들이다. 선교사의 자질은 곧, 성도의 자질이다. 성도는 어디에 있든 선교사이기 때문이다.

(권영호 기자)

1월 22일 선교위원회의 헌신예배

수요 2부 예배(17:40)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매월 첫째, 셋째 수요2부 예배를 각 부서가 주관하는 헌신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에 1월 22일(수)에 선교위원회가 첫 번째로 헌신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동참하여 선교의 헌신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헌의 성도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헌신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에도 각역에 이어 많은 단기선교 파송을 계획하고 있기에 더욱더 참여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모두가 새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헌신예배에 참여하여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위원회의 모든 실행위원들과, 2002년도 선교에 참여하셨던 모든 고인들과,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고인들은 상기 선교위원회의 헌신예배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제1차 목사·장로·안수집사·권사 기도회 1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갈릴리 홀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기면 바울의 고백은 자기성취로 기쁨을 누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의 불길 속에 자신을 던진 그의 삶은 편만함과 안락함에 빠진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기꺼이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의 몸을 세우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에 '충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가지기로 한다. 아무쪼록 '충헌'의 모든 지도자들은 적극적이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며, 모든 성도들은 이 시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올해의 내 소원

김소영 (고등부)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어디까지나 내 착각이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얘기를 들어주시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나의 참 구세주이시라고 고백을 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해왔던 것이다. 가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도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인 것을 알면서도 인도하심을 의심하며, 내가 내 삶을 이끌고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줄곧 내 얘기만 길게 하니 하나님의 생각을 알 리가 없다. 이제 말씀

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알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소름끼칠 정도의 깊은 사람이다. 내가 아는 것은 그런 그분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가면 어떠한 어려운 길도 감사하며 걸을 수 있다는 것과 내 입술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나의 어려움 속에서 커가며 그 속에서 소름 끼치도록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기대한다.

고등부를 마치며

김상혁 (고등부)



들뜬 마음으로 고등부 생활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하게 되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은혜로 고등부 과정을 마치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무척 힘들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과연 어떤 자였는가? 고등부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 교회 봉사를 감당하려 했던 것이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물을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았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천국가게 하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낮은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품어주셨음을 기억한다. 고등부가 소외받고 외로운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 임직원들이 교회 봉사를 할 때 봉사 자체에만 매달리지 않기를 바란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기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지체들과 함께 한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사랑 많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라게 해 주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마지막 코이노니아

이 지현 (고등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2002년도의 마지막 토요일이었던 지난 12월28일에 고등부에서는 '코이노니아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WE ARE THE ONE!"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고등부를 졸업하는 저에게는 마지막으로 갖게 되는 '코이노니아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아쉬움을 가지고 이번 '코이노니아의 밤'을 맞았습니다.

코이노니아의 밤을 보내면서 저는 지난 3년간 고등부에서의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신교에 뜻을 품고 스리랑카에 선교를 다녀왔던 1학년, 한때 교만에 빠져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무슨 자랑거리로 여기기도 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내 평생의 구주, 예수님을 만났던 2학년, 그런데도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해, 시험 때문에 고등부를 잘 심지어 못했던 3학년.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 불만만 늘어놓았던 저의 행동들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3년 동안 지내왔던 고등부를 떠나리니 아쉬움이 많이 납니다. 앞으로 대학에서 올라가서도 고등부를 잊지 않고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중에서

인간의 악함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함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함은 다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인간의 악함 때문입니다.

인간의 악함의 근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책망 받는 것을 싫어하는 데 있습니다. 책망과 수치는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고, 그래서 인간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고,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거나 자기가 편하도록 이끌어줄 때, 하나님의 선함을 칭송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선하지 못한 분으로 몰아잡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숨기는 것을 위선이라 하여 죄를 당당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역시 수치를 느끼지 않으려는 행위입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술취한은 싸구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의 자기 인식이야말로 유일하게 참된 인식이라고 말합니다(삼 3:5, 19).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알기 원하지 않는 자는 성도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성도로 만들기 위해 수치를 주어 죄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 죄인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진정 선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죄가 많소한다는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절의 죄들을 떠 올리며 지금과는 전혀 상관 없다는 듯이, 마치 좋은 추억을 회상하듯 웃음까지 터뜨리거나 말을 합니다. 이것은 수치를 교묘하게 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죄를 씻는 것은 시간이나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어떤 시절의 죄가 사하여졌다 해도 그 죄를 위해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지를 생각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수치, 즉 내적인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을 주며 스스로 '심심 바른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부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고, 상대를 배려해 줍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목사의 일장 연설을 듣고 "도대체 내가 그분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던 말입니까?" 하고 말합니다. 후, 겉으로는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죄책감이 드는 순간, 즉 수치를 느끼는 순간이 모든 불경쟁적인 생각들을 사라집니다. 수치를 느끼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했다는 것이고, 죄인임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수치를, 고통을 주시는 그분은 정말 선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대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실)

주역장 역성훈련

다 내게로 오라 (마 11:28-30)

16교구 안창덕 목사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면 짐이 쉽고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가기 때문에 짐이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형벌의 무게를 생각하면 측정한 수 없는 만큼의 무게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짐이 무겁다고 느껴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벗어 버리셨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존을 위해 고통을 당하며 산다. 또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산다. 인식을 하고 있던, 하고 있지 않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들은 영혼의 고통이 물결이나 그 외의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영혼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듯 인간은 무엇이 부족하지 모르며, 스스로 영혼을 채울 수 없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해야 방향이 끝난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죄를 해결할 것인가? 예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방향은 끝나고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온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한다. 예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학식, 권세, 윤리가 고통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다. 이윽고 고통을 토로하는 자가 있는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전해주라.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권오섭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 별 ♥ 김미경 부부를 소개합니다



김미경 자매는 용인에 살고 있으며, 오는 3월이면 아기를 낳을 예정입니다.

시부모님의 인도로 충현 교회에 등록했고 새가족부 집회에 다녀와 참여합니다. 결혼 전에는 친정의 영향으로 종교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매는 대예배의 엄숙함에 놀랐고, 찬양을 통해 '예수님이 진화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교회에서 공부하는 게 낯설기도

했고, 게다가 나이드신 분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조건이 어떤 행위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므로 값없이 얻는 것이라는 사실에 감명받았습니다. 김별 형제는 세례 고인이며, 결혼하면서 아내인 김미경 자매를 전도하여 신앙의 좋은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숙정 통신원)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9	이재형	1	장년2부		40	김미경	17		함송자(17)
30	김종심	3	장년2부		41	조혜진	19	대학부	이태진(10)
31	한은미	3	청년2부		42	조지아	19	청년1부	
32	박동식	6	청년2부	이진규(6)	43	오민아	19	청년1부	김정순(16)
33	이광재	8	청년2부	박명호(7)	44	김소영	16	청년1부	김민철(16)
34	구승아	8	청년2부	박명호(7)	45	문호영	19	청년1부	윤효호(1)
35	전미연	8	청년2부		46	박주현	19	청년1부	최다래(19)
36	박영희	9	예배다부	정순옥(1)	47	박희선	19	청년2부	정운철(2)
37	김성희	10	장년3부	김진영(19)	48	박소영	19	청년2부	
38	최상영	14	청년2부	이은선(7)	49	김민희	19	청년2부	
39	함길주	16	청년2부		50	김은주	8	마리아	

※ 송현교회와 한 기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문 203호 새가족 등록표 오시기 바랍니다.

★ 양호실

5교구 기윤영 성도(여25세) 14일부터 일주일 간 문금실에 입원해 있다가, 22일 끝수익식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1결수기증자는 남동생입니다. 환우와 남동생의 건강이 잘 유지되고,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6교구 우기득 성도(남53세) 폐경암 말기로 통증은 많이 완화됐으나, 식사도 잘 못하고 거동도 전혀 못하는 상태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8교구 이숙정 집사(여60세) 간식식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환우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13교구 김숙진 성도(여) 면역성결핵 폐결핵으로 입원 중입니다. 치유가 까다로운 병이라 환우가 많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환우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이 성장하도록, 배우자와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14교구 정재봉 집사(남78세)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데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환우와 가족이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남은 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길 가는 순례자’ 중에서

시편 127편 - 일

일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죄가 번식하거나 혹은 믿음이 성숙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죄는 곧은 것을 위해서 굽게 만드는데, 아주 살짝만 기울어 놓아도 정화하조준되어 있던, 하나님이란 과학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악과 착하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삶과 삶의 주된 구성요소를 믿음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야말로 제자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소망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췄을 때 우리는 순종을 통해 새롭게 빛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일을 위한 바른 길과 곧은 길, 둘 다 보여 줍니다. 아울러 절고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인도하는 모범을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라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서 재게는 잠을 주시느니라”(시127:1-2). 어떤 이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시니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대해야 했던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으므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돌려앉아 두 손만 모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화가 나서 그들에게 가서 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너희 가운데 구교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도라 형제들이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살후 3:11-13).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모든 수고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혼돈으로 치달았던 바벨탑의 죄악을 피하기 위해서 “수고도 아니하고 길잡도 아니하니” 들에 편 백행화를 흉내내는 것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은 일 자체를 우상화하거나 좌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임혜원 기자)

♪ 다음 주일 찬송

254장 “주 은총 입은 종들이”

메리 코렐리아 비숍 게이츠(M. C. Gates, 1842-1905)의 이 찬송시는 세계 구석구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선교의 열기가 일어났던 1890년의 기독교대회 연차회에서 소개되었다. 작사자의 남편인 작곡자 에드윈 드류웨트(E. Drewett)가 제작하던 대학의 이름을 붙인 이 찬송가의 원래 곡명은 “앨머스트”로 처음에는 다른 찬송시에 붙여졌다가 1887년 영국의 최종교회 찬송가에 이 찬송시가 결합되어 실린 후 이 찬송가의 곡조가 되었다.

- 1절 : 오 주여 당신 일에서 빠른 사자들을 곳으로 보내소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전령들을 당신이 가실 곳으로 보내소서.
- 2절 : 대열을 본 자들을 보내소서, 주의 이름으로 말씀이 귀에 정경한 자들을 보내소서. 잃은 당신의 양을 데리고기 위해 보내소서.
- 3절 : 죄에 빠진 자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주고 명들고 쫓긴 심령 구원기 위해 주님 사자들이 가실 곳으로 자들을 보내소서.
- 4절 : 모든 사자들은 성령의 감을 가지시니 주의 영원한 말씀의 감이라.
주님이 임하실 모든 곳에 저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소서.

선교 현장에 나를 부르시는 주님, 그리고 영적전투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릅니다.

(찬양위원회)

5학년의 소년부를 마치고

옥 지 나 (소년부 전리7번)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을 마치고 6학년이 된 소년부의 옥지 나예요. 저는 이번에 소년부에서 1년을 보내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았어요. 우선 저는 신앙심이 그렇게 깊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어떤 것을 보지 않고는 잘 믿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서였죠. 저는 힘든 일이 오면 기도하기 보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고 싶었던 분이 예수님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날 우리 가정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싸움이 커지는 것 같아서 정말 무서웠죠. “가족이 흩어지면 어쩌나!” 하고서 말이에요. 저는 누구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전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는 방 문을 열고 스탠드 불만 켜고 정말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말을 했어요. 눈가에 작은 눈물을 맺히면서요. 그런데 다음날이 되자, 가족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화목해져 있었답니다. 저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자비를 베푸신 거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외쳤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 일은 아직은 가족들조차 모르는 일이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된 또 하나의 이유였답니다. 제가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지만 꺾이지 않는 저의 자존심 때문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친구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졌죠. 그래서 얼마ක 한 번 말을 했었답니다. 물론 엄마는 정신적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나 친구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날 주일학교에 갔는데 반 선생님께서 “고민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답을 구하렴.” 하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제 마음속에 있었고, 친구 관계에 두려움을 느꼈던 저는 예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후 응답이 없자 마음이 졸였어요. 그런데 다음에 반 주일학교 때 선생님께서 또 “진실된 마음으로 구해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때는 호기심으로 기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시 진심으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다음 월요일 친구들이 제게 상냥하게 말을 걸었답니다. 그후 전 친구 관계가 좋아졌고 다시 한 번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어떻게든 좋게 인도해 주시니까요. 이제는 제게 예수님을 뜻하는 마음은 거의 없답니다. 지금 전 그 마음을 뿌리 째 뽑는 중이랍니다. 예수님, 제를 6학년때도 잘 이끌어주세요. 사랑합니다!

교사 성탄 성극을 마치고

어름성경학교가 끝나자마자 초등부 교사들은 한 마음이 되어 성탄 준비를 위한 성극팀을 구성했다. 자신들의 소속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는 초등부 어린이들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합심하여 기도하고 연습했다.

준비하는 교사들 중에는 멀리 천안, 대전,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먼저 오셔서 준비하고 기도하시며 성탄 준비에 끝없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서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지파임을 느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모두 소진하는 선생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빛진 자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준비과정들 거쳐 완성된 성극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음을 기억하니까 기쁘기만 하다.

주인공 민아씨는 예수님은 세상 어느 곳에도 바랄 수 없는 보배이기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십자가 믿음을 지킨다. 환교하고 그지없던 민대감과 그 가족, 이웃들이 민아씨의 믿음을 통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다.

이제는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되어 초등부 어린이들도, 교사들도 부서를 옮겨 옮겨져 되었지만 교사들이 흘린 땀과 눈물 어린 기도는 남아, 내년 성탄에는 어린이들이 믿음도 더 자라고 기도 많이 자라서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방학 중인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컴퓨터 게임에만 빠지지 말고 우리들의 죄를, 이 거울에 내리는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이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신 모든 선생님들이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았노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기를 소원한다.

이 상 배 (집사, 초등부 교사)



믿음의 학교에서

다윗의 실수

사울에게 죽임당한 처지에 있는 다윗에게요, 요나단은 피할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요나단과 이별한 다윗은, 제사장들이 거주했던 놈 성읍으로 도망갑니다(삼상 21:1). 놈의 대제사장은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손자인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혼자 온 이유를 묻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왔다고 하면 아히멜렉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까봐 자신이 사울의 특명을 받은 것같이 거짓말을 합니다(삼상 21:2). 그래서 막을 것과 무기를 얻습니다. 다윗이 본을 본했었습니다. 그는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창과 같이 필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다윗은 믿음이 약해져서 사울을 두려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칼을 피하려 합니다.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제사장 떡과 칼을 얻지만, 계속 물러 수 없음을 알고, 블레셋의 성 강도로 피신합니다.

다윗은 이 같은 거짓말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지만(삼상 21:6,9), 후에 그 일로 인해 놈의 제사장 85명이 때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야기시킵니다(삼상 22:9,10,18-19).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삼상 21:10). 마침내 다윗은 자기 나라를 떠나, 원수였던 블레셋의 땅으로 도망갑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때로부터 수 년이 지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못 알아 보리라 생각한 것이요, “다윗 아가스의 신하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왕에게 고하자, 두려운 나머지 미친 사람처럼 행해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제하고 대문밖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면에 흘리며”(삼상 21:26-13). 다윗의 미친 사람 행태가 성공하여 무사히 도망쳐 나을 수 있었습니다. 멋진 계획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은 체포 되고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미친 척 하지도 않았지요. 그러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야만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은 그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그의 행동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나약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방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독히도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비록 온전히 이를 수는 없을지라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땀으로 된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권하되니 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벧전 1:2,15,16).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살전 4:3).

(권영일 기자)

진리의 생

고린도전서(1 Corinthians)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형성은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바울은 이곳에서 ‘아굴라’와 그의 아내 ‘프리스킬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몰아내는 바람에 이곳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행 18:2).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울과 이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복음이 ‘고린도’ 지역에 뿌리내리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이 부부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으며,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일 년 반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행 18:11).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그런데도 가장 많은 분열과 부도덕함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거룩함과 순결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언제나 ‘고린도’ 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고린도전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펴보아 여 당도록 읽기 위하여 ‘고린도’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십자시대의 ‘리스베기스’라고 불릴 정도로 도박과 매춘, 그리고 다양한 모험들을 즐겼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천여 명의 매춘부들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 ‘고린도’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또한 이류 때문에 이중해 전역의 상인들과 상인들이 ‘고린도’로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을 숭배 신전은 이러한 육체의 탐욕을 추구하는 ‘고린도’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참된 ‘아가페’ 사랑에 대하여 매우 철저적이고 논리적으로 교훈한 것 같습니다. 헬라의 남부 지역을 돌아서 가는 힘든 항로를 택해 가 했던 사람들에게 헬라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짧은 육로에 해당하는 ‘고린도’!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상업적 성직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는 외국 종교들의 유입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김동환 목사 (울진교도 지도)

교 회 소 식

〈주간 헌화〉에서
알려드립니다

〈주간 헌화〉은 일반
적인 교회 소식이라는 다
르게 생명을 전하는 전도
지의 성격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쳐
못하게 꼭 알아야 할 일
들이 있을 경우 8월을 이
용하여 광고하고 있습니다.
다. 8월을 도입, 결혼,
별세, 주 소 변동 등의 내
용과 교회 전체적인 경
전을 실고 있지만 지면이
적당히 모자라 늘 부족함
을 느낍니다. 또한 2003
년도에는 교회 전체적인
광고를 많이 게재하기가
어려워 지면이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
년도에는 광고 게재
원칙을 정하여 시행하려
고 합니다.

2003년
〈주간 헌화〉
광고 게재 원칙

1.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 헌화〉이
기에 광고도 교회적
인 광고만을 취급하
겠습니다. 불특정 다
수에 대한 광고는 불
가합니다.
2. 따라서 모든 광고를
실지 않겠습니다. 전
교회적인 모임(창치
기흥회 등)은 교회
에서 취급하겠습니다.
전도도 포함, 각
위원회 활동, 정기
적인 모임 등의 광고
는 실지 않습니다.

3. 〈주간 헌화〉에 광고
를 요청할 경우에는
는 (신청서) 사역을
이행하여 주사가 피
차간에 적어야 없
습니다. 반드시 지
수지가 비워집니다. 전
회로 요청하여 부
서장 서명이 없는
광고는 접수하지 않
습니다.

사전 할형입니다

2003년도 시주 직후에 개최할 사전 할형이 있습니다.
대 상 : 시주권사, 교회학교 차장/전도회 회장/안수집사, 권사 제2회
장 소 : 경주호텔(전도회 114호) 시 간 : 매주일 (오전9시~오후4시)
기 간 : 2003년 1월 26일 (주)지

전도위원회 및 년도도의 하반기 회계감사 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전기간 : 2003년 1월 첫주~2003년 2월 마지막주일까지
2. 대상기간 : 2002년 7월~12월
3. 감사장소 : 전도위원회(교육관 6층)
4. 준비서류 : 시선소 2부(2002년 1월~12월), 건전성남부, 원정,
신소준출 등

예배위원회 봉사자 교육

예배위원회에 소속 예배부·성경부·인내부·헌금부의 모든 봉사자들의 교육

2003년도 교구 모임 장소

- 1교구 / 제2교육관 204호
- 2교구 / 제3교육관 407호
- 3교구 / 본당 112호
- 4교구 / 제3교육관 401호
- 5교구 / 본당 지하 이면층
- 6교구 / 제2교육관 매추리부실
- 7교구 / 제2교육관 1층 유지부실
- 8교구 / 본당 1층 배너룸
- 9교구 / 복지관 지하
- 10교구 / 제3교육관 307호
- 11교구 / 제3교육관 301호
- 12교구 / 복지관 지하2층
- 13교구 / 제3교육관 201호
- 14교구 / 제3교육관 507호
- 15교구 / 본당 1층 갈릴리움
- 16교구 / 제3교육관 영아부실
- 17교구 / 제2교육관 4층

지랑난바루 봉사자 모집

2003년도 지랑 난바루에 남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사무국 ☎552-8200, 4060, 지랑 난바루(4068)

직원 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장소 : 서당(지랑난바루) 속대 개보·3명, 신역면부(현충탑)
여직원(25대 미만)
2. 자격 : 세교인
3. 제출 서류 : 자필 이력서·주인명부(본·당장 추천서(2인제) 포함)
4. 서류 제출처 : 서당(현충탑) 605-1 총현교회 사무국 ☎ 552-8200

종교개혁 100주년 기념

- 구 유년구역 / 1월 3일 밤세, 1월 6일 장례
- 3. 장례주최도
- 장영자 권사 부친, 6교구 장영자 권사 / 1월 5일 밤세, 1월 7일 장례
- 4. 오귀환장사
- 안영자 권사 남편, 6교구 밤세(2교구) / 1월 6일 밤세, 1월 8일 장례

이반주 새벽기도회 담당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주일)
설교자/기도자	고광환/한승규	이종철/박광래	김영문/송영준	여국근/이 철	김교성/오재일	이수근/윤인숙	서광진/한영준

다음주 예배 담당

예배	예배 전찬양	사 회	기 도	설 고
I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외소프르노 김승희(아브라함 할랑데 홀로이스트)	김광환	안종욱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시 67:1-3) 김성관 목사
II	어제에나 오늘이여 외소프르노 김승희(아브라함 할랑데 홀로이스트)	이수근	전종욱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시 67:1-3) 김성관 목사
III	어제에나 오늘이여 외소프르노 김승희(아브라함 할랑데 홀로이스트)	김광환	이병욱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시 67:1-3) 김성관 목사
IV	어제에나 오늘이여 외소프르노 김승희(아브라함 할랑데 홀로이스트)	이수근	김기현	열린 문 (제 37:13) 박영민 목사
V	나의 길 갈 다고도 외소프르노 김승희(아브라함 할랑데 홀로이스트)	이종철	원종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시 67:1-3) 김성관 목사
찬양		이영민	이영민	구원의 의 (제 30:1-15) 정찬진 목사
수요 I		서광진	김순배	그리스도의 제자 마 10:32-39 김성관 목사
수요 II		이종철	임필성	이종대 목사
수요 III		이종철	이종철	김성관 목사

특별찬양 (비율과 신안곡/NMC) 평일전도대 / 핸드벨 동아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I 오전 9:00	본 당
	II 오전 10:3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2:00 (주회, 회가사 찬양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들이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후 5:00	본 당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II 오전 10:30	교육관 110호
유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201호
	II 오전 10:3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I 오전 9:00	제2교육관 1층
유 년 부	I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II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초 등 부	I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및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및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 등 특이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4:00 P.M. Church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Indonesian, and Bengali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교우회	오후 10:3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기도원차량 운행
월, 목, 금요일 10:00 / 월, 목, 금요일 7:00
(주말은 별도 운행)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1부	오전 12:20	교육관 501호
	오전 12:30	교육관 507호
청 년 2부	오전 12:30	교육관 407호
	오전 12:30	교육관 307호
소 방 부	오전 12:15	갈릴리움, 배너룸
신 소 가정부	오전 12:15	교육관 204, 205호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예배 부	오전 9:00 (만 50 이상)	교육관 207호
세 가 부	오전 9:00 오후 2:00	교육관 102호
초 기 교인회	오전 9:30	갈릴리움, 배너룸
충현대인양회	주요교육	교육관 107호
조 기 교인회	주요교육	충현대인양회
국회대인양회	오전 9:30	아 변 통
충현대인양회	오후 6:10	갈릴리움

충현기도의 창

1)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계로 등
지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인제나 복음의 진
리를 선포하는 절절한 통로로 사용하러 주
소서.

2)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
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3)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
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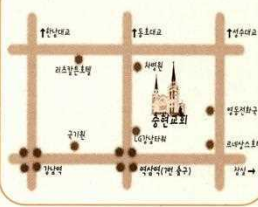
4)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
고,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
한 전로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6) 교구별 대안자 전도와 교회성장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
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
게 하소서.

7)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
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 소식은 길



성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시무장로

-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 최대원 임필성 김도용 오정현 이 훈
- 남인주 정운호 김양길 문홍구 조인재
- 김종구 최부길 김철재 이창호 차진득
- 김광남 이종석 이병욱 안종욱 임부원
- 이종석 최기홍 이갑재 전종욱 전종욱
- 이정우 김단용 황영진 한승규 김영수
- 정종석 김기현 원종철 이현수 안현원
- 황의만 김규형 최유덕 이계인 박덕양
- 이대식 장대두 박종규 권명호 조준환
- 배준식 김경달 이일호 박관섭 최기운
- 노영한 박철구 정정길 신상수 강철형
- 고계승 김경은

■ 부목사

-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일훈 여국근
- 김교성 이수근 이상진 안영철 방영원
- 나광영 정진호 김우덕 이성욱 고광환
- 김창근 권완강 김익현 김경수 장 훈
- 임현덕 이희식 최홍철 하종철
- 찬양감독 김인구 ■ 전집사역자 서준성
- 전집사역자 김소연
- 어전도사
- 정현의 신동호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 홍순애 이국주 김갑자 안태순 김경원
- 조옥자 강덕필 김경진 장해구 최윤성
- 전은희 김경순 김경자 이수경
- 단기선교사 강기열(의정부)
- 협력선교사 허요섭(의정부)